

교과 융합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실었습니다.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최선경 교사의 영어기반 융합수업

## 우리 지역 관광정보센터에 내가 만든 안내책자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이하 경북사대부중)의 최선경 영어 교사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며 자연스럽게 영어 교과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대구소개 리플릿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최 교사는 중1 영어 4단원 ‘A New Neighbor’를 사회·미술·국어 교과와 융합해 수업을 재구성했다.

학생들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17가지 지속가능한발전목표(ESDG, Educ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살펴본 뒤 대구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을 정리한 후(사회) △해당 내용과 함께 대구의 관광지,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글을 영어로 작성하고(영어) △이를 리플릿에 옮겨 적은 뒤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꾸미는 활동을 수행했다(미술). △활동을 마친 후에는 동료·모둠평가를 실시하고 성찰일지를 작성했다(국어).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영어 실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자신의 주거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다. 경북사대부중 학생들이 제작한 대구소개 리플릿 일부는 ‘대구 관광정보센터’에 비치됐다.

최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제작한 결과물은 교내에서 공유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작된 결과물은 실제 지역사회와 연결돼 활용됐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성취감이 컸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mailto:hj_kim86@donga.com)

대상 중1	과목 영어	단원 4. A New Neighbor	차시 5차시
학습주제	[대구소개 리플릿 만들기] 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습을 고려하여, 영어로 대구를 소개하는 리플릿을 만들 수 있다.		
학습목표	듣기	영중9141-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절차에 알맞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말하기	영중922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읽기	영중933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쓰기	영중9412-1. 주변의 실물, 그림, 사진 등을 보고 대상을 묘사하는 짧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영중9421-2. 학교생활이나 지역사회 활동을 소재로 하여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1차시 수업주제	문제상황이해 및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2차시 수업주제	내용 구상 및 영작하기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상황 제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친구를 위해 '대구 소개 리플릿'을 제작하자는 문제상황을 제시한다.</li> <li>-유네스코가 선정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간략히 살핀다.</li> </ul> </li> <li>▶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및 역할분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플릿 제작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활동지에 정리한다.</li> <li>-4인 1조로 모둠을 구성하고, 우리조가 만들 리플릿(총 8면)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한다.</li> </ul> </li> </ul>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문장쓰기 연습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지에 기재된 대구의 교통수단, 관광지 안내문 등의 예시를 영어로 번역한다.</li> </ul> </li> <li>▶ 리플릿에 들어갈 내용 영작 및 지면 구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적으로 조사한 내용 가운데 리플릿에 들어갈 내용을 영작한다.</li> <li>-리플릿에 기재할 사진과 글감의 위치를 활동지에 배치해보며 리플릿 프로토타입(견본)을 만든다.</li> </ul> </li> </ul>

#### 교사의 도움말

이 수업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따라서 1인당 리플릿의 두 면씩 구성하도록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좋다. 각 모둠원이 자료조사하기, 영어 번역하기, 꾸미기 등 '역할'을 중심으로 일을 배분받으면 모든 학생이 고르게 영어실력을 기를 수 없기 때문. 모둠활동이지만 개별활동적인 요소를 넣어 학생들은 글감 배치 및 자료수집 방법 등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영작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차시에는 함께 영어번역 연습을 했다. 이때 기본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교사의 노트북을 활용해 단어사전을 사용하는 것이다. 단, 일부 학생들이 '번역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사가 무조건 이를 제한하기보다 학생들이 번역앱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말을 영어 어순으로 적도록 해 번역 오류를 줄이고, 번역앱 대신 단어사전의 예문을 원하는 내용의 문장으로 수정하는 식으로 영작을 유도하는 것이다.

3차시 수업주제	개인별 리플릿 완성하기
4차시 수업주제	모둠 리플릿 완성 및 동료평가
5차시 수업주제	성찰일지 작성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 내에서 배정된 역할을 토대로 개별 리플릿 작성하기</li> <li>- 각 모둠원은 흰 종이에 개별적으로 두 면의 리플릿을 꾸민다.</li> </ul>
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 리플릿 완성하기</li> <li>- 각 모둠원이 작성한 리플릿을 색 도화지에 모아 붙여 모둠 리플릿을 완성한다.</li> <li>▶ 동료평가 하기</li> </ul>
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료평가 참고해 리플릿 수정 및 보완하기</li> <li>▶ 성찰일지 작성 및 피드백 공유하기</li> </ul>

### 교사의 도움말

미술작품 대회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리플릿의 예술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다만, 독자를 위해 '가독성'과 '영어 표현의 정확성'을 고려해 리플릿을 꾸미도록 해야 한다.

4차시에는 각 모둠원이 꾸민 종이를 한 데 모아 하나의 모둠 리플릿을 완성한다. 이후 자기·동료·모둠평가를 실시한다. 학생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친구와 다른 조의 작품을 평가하며 객관적인 분석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렀다.

5차시 성찰일지는 한글로 작성한다. 단, 학생들이 자신의 느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적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확하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글쓰기 능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성찰일지 작성을 빨리 끝마친 학생들에게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면 다른 학생들이 힌트를 얻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의 성찰일지는 교사가 해당 프로젝트를 수정·보완하거나 새로운 수업을 기획하는데도 좋은 자료가 된다.

## 교사의 코멘트

영어 교사 혼자 해당 수업을 진행했지만, 가능하다면 사회·미술 교사와 합심해 팀티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학생들은 한 가지 수행평가를 통해 각 교과목의 요소를 보다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우리 학교는 국제화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일본의 한 중학교와 교류하는 행사를 갖는다. 일본 학생들이 대구만의 역사, 문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대구의 명소를 소개하는 영어 리플릿을 제작해보자며 관심을 유도했다. 만약 이 수업을 일반화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를 방문할 외 국인 관광객을 위해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고 댓글로 피드백을 받거나, 학교 원어민 교사에게 평가를 받는 등의 상황을 제시할 수 있겠다.

학생들이 영어번역 및 리플릿 제작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을 안내하는 한글, 영어 팸플릿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 최선경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영어 교사